하고 싶은 거 다 하되 자기가 했단 생각 하지 말라

☞ 21면에서 계속

롭게 돼서 공덕을 크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여) 큰스님, 오랫동안 좋은 법문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생활하면서 불교와 생활이 둘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주인공한테 항상 맡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인공한테 항상 맡기면서도 '주인공,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맡기면서도 주인공한테 관하는 방법이 올바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고 항상 의심이 조금씩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주인공한테 잘 관할 수 있는지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여직껏 말해 주지 않았어요? 당신, 지금 말하는 자체가 바로 그 주인공 놈이라고. 말하게 하는 놈 자체가 바로 주인공 놈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하하하….

질문자2(여) 감사합니다. 스님께 어려운 일 병고 액난을 하소연했을 때 스님께서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겨 놓고 관하세요."라고 하십니다. 관하는 도리를 통해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할 경우에, 병이 낫는 까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여직껏 말했지 않소? 회사를 다스리는 회장과 같아서 바로 내 몸속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그 회장의 결정하에 작용을 한다고. 내 몸속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는 데에 따라 작용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믿지도 않고 마음도 정하지 않는데, 결재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일을 합니까? 그와 같이 내 몸속에서도 결재를 해야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질문자3(남) 무량 법문 잘 들었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면서, 막상 선원을 떠났을 때 그 도리를 실천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큰스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심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관한다고 함은 곧 지켜보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엇을 지켜보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생각, 자기의 마음이 현재 상태를 지켜보는 것인가,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놓고 가는 것인가? 이래저래 생각해 봅니다만 여전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큰스님 가르침 청합니다.

큰스님 마음이라는 건 허공과 같아서 마음이 요거 한 가지를 생각했다면 고정되게 고거 한 가지만 딱 물려서 있는 것이 아니죠? 요 마음으로도 화할 수 있고 조 마음으로도 화할 수 있죠? 금방 딴 사람 만났으면 금방 화하고, 또 딴 사람 만났으면 금방 화하고,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게, 자기 마음 근본에다가 딱 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이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이라 그러는 건 이름이에요. 그러나 수천수만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것이 참선(禪)이에요. 그리고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한번 실험하려면, 밥을 짓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무엇을 하나 해도 실험해 보려면 한번 넣고 지켜보지 않아요? 그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그렇게 거기 맡겨 놓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거기 놓고 지켜보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게 실험이요, 그것이 지나가면 바로 체험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놓고 관하고 지켜보고, 관한다는 게 지켜보는 거니까 둘 아닌 지혜로운 마음으로 거기다 맡겨 놓고 지켜본다. 지켜보면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아, 고놈이로구나! 고렇게 되는 거로구나!' 하고 그때는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죠.

질문자3(남)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질문자4(남) 큰스님 법어집인 『무』에 보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핑계 삼아서 조금 소심해서 잘하지 못했던 것이나 계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대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변명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큰스님 그런데 말이에요, 이 무(無)의 정신계라는 거는 물질이 나오기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데 정신계라는 것은 설계도가 나오기 이전이거든요. 그죠? 설계가 나오기 이전이니까 집을 어떻게 짓든지 설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해 놔야 집을 짓죠. 생각을 낼 때는 물건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면 물건이 어디서 오든 올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게 뭐냐 하면 마음과 마음이 일체가 다 같이 전달이 돼서 돌아가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포괄적으로 돌아가는 우주 법계에 실현이 되는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한다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뿌리를 무조건 믿고 거기다 놓고 관찰하면서 체험하면서 돌아가다 보면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아, 과감히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것이 둘이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 모두를 알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해서요.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질문자5(남) 큰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여 오늘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기실 그 마음공부의 대상이 어떤 사사로운 이익에 제한돼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기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고통과 고난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스님의 제자로서,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진정 새롭게 추구하고 또 바라야 될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지금 "부처님의 제자로서, 스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한다면 풀 한 포기도 스승 아닌 게 없어요. 부처님만 스승이 아니에요. 나만 스승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강도 짓 하는 사람을 보고도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풀 한 포기도 돌 하나도 물 흘러가는 것도 스승이에요. 그렇게 스승 아닌 게 없으니까 그거를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그런 거예요.

일체 만물만생 모두, 또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쳐서 삼심, 삼세, 그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한 거니까 그 주인공 하나만 생각하면 뜻으로다가 그냥 둥글려지죠.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산란해서 진짜 곧장 들어갈 것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모으셔서 거기다 맡기시고 지켜보는 그런 참선자(禪者)가 되세요.

질문자5(남)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선원에서 스님께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만 직장에서 일할 때 또 가정에서 문제에 부딪칠 때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마음자리에 두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큰스님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좀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사람이 안 온다 온다 이런 문제들, 뭐, 잇속을 찾는다, 이(利)가 부진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아,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로 믿는다면,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거기다가 턱 맡기고 그냥 진짜로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면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걸림이 없고요, 돈이 안 벌려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지 않을까요?

> 진짜로 믿는다면,
>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마음자리에 턱 맡기고
> 그냥 진짜로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면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간단히 생각하세요. 돈을 수만억을 번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번 것도 아니고 혼자 가질 것도 아니고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걸려요? 내가 또 많이 번다고 하는 '내가'라는 생각이, 나를 내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지 내 한마음이라는 주인공에서 본다면 아이, 그렇게 나가 많은데,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왜 거기 걸립니까?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죽인 사이가 없고, 깨치지 못한 자는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살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증득해야 알아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믿고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몇만 냥을 벌더라도, 또 욕심을 내서 생각을 내서 '저걸 벌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나도 당신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모여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묘한 법은 여러분이 아마 열심히 해야 아실 겁니다.

질문자5(남) 그럼 스님! 나한테 병이 있다든가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것이 내가 겪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겪고, 이 마음자리가 같이한다고 생각하고 끄달리지 않는다면 올바르겠습니까?

큰스님 그거야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가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 하고 놔야 되죠. 그리고 또 제 몸을 제가 끌고 가는데 '내가 죽으면, 내 몸이 죽으면 네 집합소가 없어지는데, 네 집합소가 없어지면 너도 죽잖아?'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입니다, 지금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야,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또는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남과 같이 돈을 벌어야 살 수 있고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데, 다 놓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한번 뒤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걸어오실 때에 그냥 서서 걸어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걸어오긴 했는데 발자취를 하나도 짊어지고 온 게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돈벌이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 아래에서 걸어오실 때에 발자취를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걸어오긴 틀림없이 걸어왔는데 걸어온 사이가 없다, 내가 짊어지고 온 게 아니니까. 벌이는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걸어온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되 자기가 했단 말 하지 마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공용으로 했다고 생각하라 이겁니다.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공용으로 한 것이지 자기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동시에 우리가 걸음을 걸어왔는데,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걸어오긴 했는데 걸어온 자취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 걸은 게 아닙니다. 여럿이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왔지, 아마 위 공장 하나만 그냥 파워가 일어나도 다리도 떼어 놓지 못하고 걸어오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한 거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걸림이 없어요. 그게 참 묘하죠. 말로는 할 수 없는 묘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 알아서 하세요. 하하하….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9월 19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신간!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